

다이쇼 데모크라시 내무관료의

「농촌문제」 인식

—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의 경우 —

元 智 妍

머리말-야스이 에이지의 위치

I. 「농촌문제」의 내용

II. 농촌문제와 지방자치

1. 自作農創設政策에 대한 비판

2. 농촌문제와 자치

소 팔

# 다이쇼 데모크라시기 내무관료의

## 「농촌문제」 인식

—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의 경우 —

元智 研\*

### 머리말—야스이 에이지의 위치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는 1890년 東京에서 출생하여 第一高等學校를 거쳐 東京帝國大學에서 독일법을 전공하고 1916년에 내무성에 취직하였다. 1919년 10월 警保局의 사무관이 되었으며 노동입법에 대한 제반 압력에 저항하여 사직한 마나미하라 시게루(南原繁)의 뒤를 이어 社會局에서 일련의 노동입법의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야스다 히로시(安田浩)는 야스이 에이지의 노동정책구상이야말로 치안경찰에 의한 단속중심의 행정간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sup> 야스이의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무관료인 야스이에게 있어 노동쟁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의 시점에서 파악되었지만, 「노동쟁의란 필경 계급운동」일 수밖에 없으며, 그 의의를 인정하였다. 社會局시절의 야스이는 이미 노동조합이 정착하고, 쟁의도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하는 등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기에 이르렀

---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

1) 이하 야스이의 노동정책구상에 관한 기술은, 安田浩 《大正デモクラシー史論 -大衆民主主義體制への轉形と限界》(校倉書房, 1994年)을 참고하였다.

으니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정책이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압박을 받으면 받는 만큼 그 사상이 심각하고 과격해지는 사실은 위정자와 자본가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본격화한 노동문제를 다루는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노사의 양 계급에 대하여 중립적 위치이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야스다에 의하면 야스이는 서적을 통해 이해한 유럽의 사회정책을 일본에 적용시키려 하였으며 S.G. 웹의 도시사회주의와 G.H. 콜의 길드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독점형성기의 자본주의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폐해를 지방단체등이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공영사업」을 통하여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스이는 1923년 여름부터 1924년 여름까지 유럽에 출장을 다녀온 1년 후 1925년 10월부터 地方局의 행정과장이 되었다.<sup>2)</sup> 이 점에서 노동입법을 담당하며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지방단체를 인식하였던 그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과 함께 다이쇼 데모크라시기의 사회운동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한 소작운동에 대해 內務省内 지방행정의 주무부서인 지방국의 행정과장을 맡은 야스이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하는 점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회적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야스이가 地方局 행정과장 재임중의 1927년에서 1929년에 걸쳐 《自治研究》에 게재한 〈農村自治管見〉<sup>3)</sup>을 통해 그의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보급되기 시작하던 사회과학이 내무관료에게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內政史研究會, 《安井英二氏談話 第一會速記錄》, 內政史研究資料 第16集, pp.18-19

3) 安井英二 〈農村自治管見(1)~(10)〉, 《自治研究》1927年 12月~1929年 1月号

## I. 「농촌문제」의 내용

제1차 세계대전기의 장기호황은 일본의 농촌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지역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함께, 상품적 농업이 전개되며 노동시장도 확대되었다. 도시노동시장의 임금상승에 연계하여 농업부문의 고용비용도 상승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적 영향하에 촉발된 사회운동의 분출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소작쟁의에 있어서 소작농민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초기의 소작쟁의는 일반적으로 상품적 농업이 진행되고, 도시적 노동시장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시기의 쟁의가 부락의 지주와 부락에 거주하는 소작농의 대립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쟁의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村內 농사개량사업의 중심이 되어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공헌하고 스스로도 경영적인 능력을 갖춘 篤農적 성격의 농민이었다. 그들은 村民의 신뢰를 배경으로 부락(大字)의 區長과 농가의 役員, 村會의원과 같은 村의 공직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의 소작쟁의의 지도자는, 쟁의를 통해 스스로의 농업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농촌지배질서의 창출까지 시야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sup>

야스이는 당시의 농촌문제는 자본주의의 보급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농촌문제는 현대의 경제조직의 소산인 즉, 현대의 경제조직인 자본주의가 농촌에서 발생한 경제적 관계에 연유한 것이다. [중략] 단순히 농장과 자연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발생이유를 이해할 수 없

4) 林蒼一·安田浩 〈社會運動の諸相〉, 《講座日本歴史9 近代3》(東京大學出版會, 1985年)

다. 농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고찰할 때 비로서 처음으로 문제의 의기와 소재가 명확해 질 것이다. (밑줄은 원문에서는 방점·인용자)

야스이에 의하면 德川타부시대의 농민에 대한 착취, 각 藩사이의 경제적 장벽, 봉건권력의 생산과정에 대한 간섭 등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농업은, 明治維新이후 비약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유신이후의 상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적 생산력은 눈부시게 증가하여, 따라서 전근대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sup>5)</sup>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야스이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발전은 일정단계에 이르면 포화점에 도달한다. 「개척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개척이 일단 종료한 이상, 또 다른 방향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발달의 속도는 당분간 늦어지며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停頓시기는 대체로 日露전쟁의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발전이 停頓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결국 농업경제 자체의 피폐조차도 나타나기 시작한다」.<sup>6)</sup> 또한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그 성립발달의 초기에 침체된 봉건경제조직을 타파한 당시의 결과로써, 농업경제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일정의 발전단계에 달하면, 오히려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질곡이 되기 때문에, 토지경제보다도 공업단계에 중점을 두는 자본주의 경제조직이 피할 수 없는 필지의 운명이다」라고 보았다. 즉 당시의 일본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봉건적인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며 일정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농업과 공업사이의 경제 논리에 의해 벽에 부딪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농업생산력이 정체하는 이유로 야스이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봉건시대와 달리 농가는 상품 경제에 깊이 편입되면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과정과 자신이 소비할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이

5) 安井, 〈農村自治管見(2)〉《自治研究》, 1928年 1月号, p.58

6) 同上書, p.60

개입함으로써 스스로 가격결정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거부할 수 다는 점이다.<sup>7)</sup>

두 번째로 구조적인 농촌의 자금부족의 문제이다. 야스이에 의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의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공업보다 불리하다.

농업은 상공업과 비교해 볼 때, 수익이 적고 동시에 자금회수에 비교적 긴 시간을 요한다. 토지구입자금과 토지개량자금은 물론, 농업경영자금(예를 들면 비료구입자금)이라 할지라도 본래 농업생산은 자연에 의해 결정되는 유기적 생산이며, 그 생산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생산자금 역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 [중략] 오늘날의 경제조직 하에서, 자금은 영리를 본위로 하는 유리한 사업에 유출되는 것이므로, 이윤이 많은 상공업에 자금이 모여들고, 이윤이 적은 농업에 자금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농업은 상공업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을 밟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는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각국에서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 있다. [중략] 즉, 자본주의 경제가 진전함에 따라 농업이 상공업에 압박받고, 농업국이 상공업국으로 바뀌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상공업이 번창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농업이 쇠퇴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문제이며 국가의 독립문제으로써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 중요성의 정도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처럼 해외에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본국의 경제정책이 상공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의 쇠퇴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처럼 농업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동일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농업의 쇠퇴를 방지하고, 농업의 진흥을 꾀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상공업의 자금이 효율이 떨어지는 농촌으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농촌의 자금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세의 상당액이 농촌에서 납부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재정시스템의 문제인 동시에, 지방은행·우편적금·생명보험등을 통해서도

7) 安井, 〈農村自治管見(5)〉《自治研究》, 1928年 4月号, pp.88-89

8) 安井, 〈農村自治管見(8)〉《自治研究》, 1928年 11月号, pp.46-48

중앙으로 지방의 자금이 흡수되어버리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함을 야스이는 지적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에 따른 투기붐이 농촌까지 밀려 들며 농민이 주식에 투자를 하며 많은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증가일로인不在지주의 존재라고 야스이는 지적하였다. 야스이는 농업경영의 측면에서 부재지주를 강하게 비판한다.

본래 지주가 농민의 지위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취득하는 대부분의 소득은 축적되어 농업자본으로 쓰이게 되고, 농업의 개량발달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주는 바로 농촌경제의 중심적 담당자로서 중요한 의무 내지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지주가 非 농민화하여 실제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참된 농촌지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더 이상 지주의 소득이 농업자본으로 쓰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농업자본의 결핍을 초래하고, 농업의 진보발달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비농민화한 지주나 부재지주는 스스로 농업이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 즉 사치스런 생활에 낭비하거나 상공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혹은 은행에 넣어놓거나 투기에 손을 대고, 정치운동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주의 낭비는 농촌을 荼毒(원문:인용자)시키는 바 적지 않지만, 은행직금이나 상공업투자가 상공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한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지주가 비농민화·遊食계급화한다는 사실 자체를 농촌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농촌폐쇄의 중요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농민화한 지주의 대부분은 종래 농촌에서 유력한 중심적 농업담당자였고, 농촌경제의 번영은 그들의 양어깨에 달려있었다. 반면 남아있는 농민은 소작농이건 자작농이건 막론하고, 대부분은 貧弱한 자이고, 농업의 진보발달에 필요한 資力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농업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현대의 경제조직하에서 농촌경제는 외부로부터 이미 상공업에 착취당할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지주의 遊食계급화로 인하여 도시의 농촌압박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농업경제의 입장이 서서 근면하자면 비농민화한 지주계급은 쓸모없는 계급이요, 기생적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농민화한 지주계급은 농촌자치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의 의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때문에 이들이 농촌자치를 좌우하는 한, 진정한 농촌자치의 진흥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sup>9)</sup>

9) 安井, 〈農村自治管見(8)〉《自治研究》, 1928年 11月号, pp.51-53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야스이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소작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농촌의 문제를 농촌내부의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사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야스이는 타락한 도시와 건강한 농촌이라는 이분법적인 문화론적 접근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여타 농본주의자와 그 이전세대의 내무관료들과 차별성을 보인다.<sup>10)</sup> 어디까지나 관료의 입장에서 통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치의 말단을 더 이상 농촌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계급에는 기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발달한 도시상공업의 농촌 압박을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非농민화한 지주」 즉 기생지주의 경제행동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 II. 농촌문제와 지방자치

그렇다면, 야스이는 이러한 「구조적 농촌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안하였을까.

### 1. 自作農創設政策에 대한 비판

제1차 세계대전이후의 각지에서 소작농민의 對地主쟁의의 발전은 1922년의 日本農民組合이라는 전국조직의 결성까지 이루어냈다. 농민운동의 고양속에 정부도 소작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하의 1920년 11월 農商務省내에 소작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小作制度調査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 곳에서는 小作法, 自作農創設制度, 小作組合法, 小作調停法の

10) 내무관료의 세대론에 대해서는 拙稿인 《新官僚の研究》(一橋大學博士論文 1999) 가 있다.

입법등 소작관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의 검토가 이루어 졌다. 이 검토를 반영한 小作調停法은 加藤니각기의 제49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26년 설치된 小作調査會의 방안은 궁핍화하는 자작농과 소작인의 토지구입을 지원하여 농촌내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스이는 소작농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여 자작농을 육성한다는 小作調査會의 방안에 비판적이었다.

첫 번째로 소작농이 정책적인 저리자금의 융자를 얻어 경지를 구입하려 한다면 결국경작지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이다. 더구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어도 「소작지면적에 비해 자작농지 창설유지면적은 너무나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년 창설되는 자작농가의 수는 자작농감소의 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당시의 경작농지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비싸게 책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사회운동이 진전되어 소작료가 내리거나 소작권이 확립되어 경지가격도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과정에, 정부에 의해 경지매입에 의한 「대규모 자작농창설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경지가격하락의 추세를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격의 등귀를 부추겨 지주가 부당이익을 차지하거나 소작인에게 매입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융자상환에 대한 문제이다. 융자를 받은 소작인은 후일 토지구입대금의 원리금을 정부에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야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작인은 이 시설로 인해 형식상·명의상은 토지소유자라는 空名은 얻게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래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만약, 예전에 소작료의 노예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연부금(年賦金)의 노예가 될 뿐, 노예라는 사실에는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 뿐더러, 토지소유자로의 공조공과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도 한층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만약 自作을 그만둔다면, 토지소유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불입 이자도 날려버리게 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싼 희생을 치루면서까지 자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략] 요약해 보자면, 문제의 증점은 소작인이 토지소유권을

획득한다는 명의를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하면 현재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에 있다. 따라서 소작인이 단순히 토지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작농유지시설과 같은 것은 도저히 농촌문제를 해결하거나 농촌을 진흥시키기에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sup>11)</sup>

즉, 기성정당이 주체가 되어 소작농의 경지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농업에서 떨어진 부채지주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점과 결과적으로 소작농은 종래의 「소작료 노예」에서 「연부금 노예」로 바뀔 뿐 생활개선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야스이는 비판적이었다.

## 2. 농촌문제와 자치

그렇다면, 야스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농촌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야스이는 주장한다. 「소작인의 실질적 후생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경지소유권이라는 공명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소작법의 제정으로 소작권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다.<sup>12)</sup> 또한 야스이는 「본래 소작권을 확보하고 소작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벽에 부딪힌 우리 나라 농업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것과 지극히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소작인이 소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경지개량과 생산력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작문제의 해결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전개한다.

소작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야스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현행민법에 의하면, 일반소작권은 對人的 債權에 불과하므로 지주의 동의를 얻어 등록해두지 않으면 지주가 교체되었을 때 소작권은 새 지주에게 소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소작권지속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소작인은 지주의 立退權 행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11) 安井, 〈農村自治管見(9)〉《自治研究》, 1928年 12月号, pp.27-29

12) 安井, 〈農村自治管見(8)〉《自治研究》, 1928年 11月号, p.31

소작인은 부당한 소작조건-부당한 소작조건은 단순히 소작인의 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의 진보와 향상을 저해한다-의 개선을 꾀하려한다면, 한편으로는 지주측이 가하는 토지출입금지와 立毛압류로 압박당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교섭에 대한 여러 단속령으로 억압받게 된다.<sup>13)</sup>

1924년의 소작조정법 시행을 둘러싸고 日本農民組合關東同盟이 「경작권 확립문제의 해결이 없이 이를 현재대로 두고 양자간의 쟁의를 조정하려하는 것은 전혀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소작인을 고의로 억누르려는 것이던가 아니면 극히 미봉적인 일시적 호도책에 불과하다」<sup>14)</sup>고 성명에서 지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스이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다시 야스이는 말한다.

오늘날의 경제조직 내지 법률제도는, 소위 계약자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제정법규의 소작법이 얼마나 발달하더라도 소작보호의 한도는 그 시대와 그 사회의 國의 최소한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극히 低度한 것이어서, 그 이상은 지주와 소작인간의 임의의 거래에 맡겨버리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법률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자유에 맡기고 있는 범위에서 진정한 계약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소작조합의 단결력으로 지주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지주와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본래, 농민입법은, 노동입법과 마찬가지로, 보호입법과 자조적 입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민의 자조적 입법이란 자조적 노력으로 농민의 지위 향상이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조적 노력이라는 것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극히 미력 혹은 무력한 소작인에게는 필경 단결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즉, 농민은 농민조합의 힘으로 小作法에 의한 직접보호 외에 자조적으로 자신의 지위향상과 개선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5)</sup>

즉, 야스이는 노동정책 입안시에 노동조합의 조직을 인정하였듯이 소작

13) 同上.

14) 社會局第一部編 《大正十三年勞動運動概況》(1971년復刻, 明治文獻)4편, pp.99-100)

15) 同上, pp.34-35

인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된 조합에 대해서도 단지 개별의 쟁의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의 활동을 제안한다. 야스이는 말한다.

농촌문제가 대한 자조적 해결방법으로써 농민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주로 경제적 방면이겠지만, 정치적 방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상의 힘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중략]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중요정책이나 입법은 주로 국정상의 문제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문제에 속하는데, 이와 동시에 비슷한 문제로써 농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적지 않게 [중략] 증가함에 따라 大正15년의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보통선거제도가 채용된 결과, 종래 지방정치상 무력하였던 하층농민-주로 소작인계급-은 차츰 지방의회에 그 세력을 뻗쳐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에 이르렀다.<sup>16)</sup>

즉 소작입법을 비롯한 농업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에의 참여가 필요하나 우선적으로는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된 지방의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스이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새로이 정치에 눈뜨기 시작한 하층 농민의 정치 참여확대에서 찾았다.

야스이는 농민운동과 지역정치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야스이가 당시의 소작조합운동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은 아니지만 「소작조합이 농촌사회의 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부할 없으며,<sup>17)</sup> 「소작조합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자치현상」이라고 보았다.

야스이는 종래의 지방자치의 문제는 「산업경제의 낙관적 발달의 시대」에서 출발한 중앙집권주의의 사상과 자유민권사상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야스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원래 지방자치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제정치에

16) 同上, pp.40-41

17) 安井 〈農村自治管見(10)〉 《自治研究》, 1929年 1月号, p.37

대한 자치정치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주권에 대한 지방분권이다. 전체에 대한 자치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자치인 입헌정치와 지방자치의 사이에 성격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분권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시 관료의 부류이던 민권운동가의 부류이던 간에 그 당시의 국정에 입각해 볼 때 중앙집권주의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8)</sup>

즉 메이지 초기에 「정치적으로는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고, 경제적으로는 외국자본주의의 압박」을 받으며, 「당시 일반국민은 日進月步의 신시대에 처하여 독립독행할 뿐 지식과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틀이 결정되었던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집권주의에 지배되는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방행정으로 이해되며 국가사무의 대부분이 地方自治體에 위임되어 「지방자치체의 고유사무는 2차적으로 취급되고, 오히려 國府縣 으로부터 자치체나 자치체의 관리에게 위임된 사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분량도 고유사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sup>19)</sup>는 것이다.

즉, 야스이는 국가가 수행하는 국정과 구별되는 自治體 고유의 업무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전자가 優先的인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sup>20)</sup>

야스이는 단순히 「법제」라는 「형식적 방면」으로 국정의 지역적 위임으로 지방분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영역임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방면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 교통, 교육, 위생, 경찰, 사회의 각종 행정」이며, 고유사무의 확충과 공영사업의 발달을 통해 지방단체를 종래의 「지배단체」에서 「공영사업경영의 주체로서의 관리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야스이는 농민조합의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운동에 관하여 비난받을 점

18) 安井 〈農村自治管見(2)〉 《自治研究》 1928年 1月号, p.63

19) 安井, 〈農村自治管見(2)〉 《自治研究》, 1928年 1月号, pp.66-68

20) 前掲, 〈新官僚・革新官僚社會派官僚-協調會分析の一視點として-〉, 《社會勞動研究》 第43卷 第1・2号, 1996年

21) 安井英二 〈地方自治の動き〉, 《斯民》 第23卷 4号 (1928年 4月号)

과 실패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기대감도 피력하였다.<sup>22)</sup>

첫째, 「자치행정의 정책적 방면에서 새로운 전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치체의 사업에서는, 주민-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실생활을 본위로 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실생활의 후생을 도모하는 공영사업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자치체의 재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주민의 부담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조세의 종류나 세율 등에서 사회정책적 조세정책이 채택된다.

둘째, 「町村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정치브로커의 私黨的 잇권의 폐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래의 지방자치제는 소수유력자의 사익을 꾀하는 도구로 되어, 주민대중은 이들 기생 계급 때문에 고향을 찢리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주민대중이 주민대중의 利害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방의회에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설령 의원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기생적 朋黨의 착취적 이권다툼을 백일하에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야스이는 말한다.

지방행정의 시설은 지방당국자와 지방의회가 주민대중과는 격리된 탑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 정치적 거래는 때에 따라서는 평화롭게, 때에 따라서는 분규를 일으키며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주민대중의 의사와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탑 속에 갇혀 있는 지방행정을 끌어내어, 주민대중의 실생활의 한가운데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서의 사회적 비판이 힘을 얻고 발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방분권의 뜻이 크게 일어나, 그 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방제도의 개정이 이미 실현성을 더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한층 그 필요성이 통절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사회적 비판이 힘을 얻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관과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되며, 적어도 주민대중당의 정치적 진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sup>23)</sup>

즉 無産정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22) 同上, p.42

23) 同上, pp.42-43

## 소 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대한 사회문제 속에서 이제까지 소외되어온 대중은 운동을 통해 자신의 생활 개선을 위한 발언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중의 발언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통치기구인 관료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회적 확산을 점검하려한 시도였다.

종래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연구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급 지식인의 언설분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을 보완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의도이다.

당시의 상황이 통치 레벨의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장 민감하게 느낀 것이 대중의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내무관료였다는 점은 기존의 노동조합법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노동조합법의 기초를 맡아 비록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좌절하였으나 협조주의, 사회정책론자의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던 내무 관료 야스이 에이지는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구조가 변화했다는 인식하에 접근하고 있다.

야스이는 소작쟁의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농촌의 빈궁화에서 우선적인 원인을 찾았으나 그 해결의 방법으로 부계지주를 제외하고 하층 농민을 포함한 농민의 조직화를 제안하였다. 1927년 단계의 농민운동론에서는 이론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나 당시의 지방행정의 관계자에 게서 위와 같은 시사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특기할 만 한 일이다. 또한 이 조직이 반드시 협의의 경제투쟁에만 국한되지않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연장선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야스이의 발상이 단지 특수한 개명관료의 케이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정치참여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무성의 위치변화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하나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 관료 야스이 에이지의 논리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차후에 별고를 준비하려 한다.

【日文摘要】

##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における内務官僚の 「農村問題」認識

元 智 妍

第1次世界大戦後の新たな日本資本主義の発展のもとで、商品的農業が展開し、労働市場も拡大した。都市労働市場での賃金上昇に連動して農業部門の雇用費用も上昇した。このような条件は小作争議の発展を可能にした。このような変化を政府機構の中で最も敏感に感じ取られたのは、對民事務を通じて民衆に接する機会が多い内務官僚であった。

1919年から内務省の社會局で労働法案作成を任ぜられていた安井英二(1915年入省)は、當時の政府内で最も先進的な方案を提出した。1年間の海外研修から戻った安井は、1925年に地方局に行政課長として赴任し、地方政策に取り組むことになる。

安井が行政課長在任中に作成した〈農村自治管見〉を通じて、當時の内務官僚がその状況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たのかを分析したい。

安井は、當時の農村問題が資本主義が発達するに連れ、商品經濟に深く編入された構造的問題であると言いながらも、資本主義下の農業の宿命だけでなく、國稅構造のような政策の問題が存在することを指摘下。また、農村から都市への資金が流出を悪化させる重要な要因として不在地主を安井は指摘した。

安井は國家經濟のためにも、農村問題を解決すべきであるが、その主役として、農業離れが進む不在地主よりは小作人のような下層農民を含む農

民組織を提案する。政府機構の中で、また地方業務を任されていた官僚が、地方行政の根幹にも關わる發想を見せたことは、大正デモクラシーの社會的擴散の事例とも言えよう。

また、政府の農村對策として、小作人の耕作權の確立こそ根本的解決であると主張する。また、小作に對する權利が十分に保證されない法律的環境の中で政治運動へ變化することは必然的であると見た。

小作人を中心とする農民組織の政治活動の場として注目されたのが、地方議會であり、1926年から實施された地方選舉の普通選舉制に安井は高く期待した。

安井は農民組合の地方議會に對する政治運動について、失敗もあることを認めながらも、より幅廣い階層の政治參加を通じて「住民の實生活を本位として、經營せられるのみならず住民實生活の厚生を圖るべき公營事業が大に興されること」、「町村大衆の政治的進出は、政治ブローカーの私的利權の弊害を阻止し得ること」を期待した。



# 彙 報

## 研究員 動靜

- 朴漢濟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9월 9일자로 동아문화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였으며 柳種陸 교수(중어중문학과), 許南進 교수(철학과)가 간사로 선임되었고, 金時俊, 徐敬浩, 許成道, 柳種陸, 宋龍準, 吳洙亨, 李永朱, 全炯俊, 李康齊 교수(이상 중어중문학과), 金容德, 金浩東, 吳金成, 劉仁善, 李成珪, 金衡鍾 교수(이상 동양사학과), 宋榮培, 沈在龍, 李楠永, 許南進 교수(이상 철학과), 琴章泰 교수(종교학과), 朴駱圭 교수(미학과), 李鮮馥 교수(고고미술사학과), 崔明 교수(사회대 정치학과), 金光億 교수(사회대 인류학과), 金永植 교수(자연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등이 본 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 金學主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999년 2월 28일자로 본교를 정년퇴임하였다.
- 徐敬浩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999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자료연구부장에 임명되었다.
- 全炯俊 교수, 李康齊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999년 2학기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와 전임강사로 각각 임명되어, 본 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 金時俊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999년 9월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번역대상을 수상하였다.
- 金時俊, 全炯俊 교수(이상 중어중문학과)는 1999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동경대에서 주최하는 '東亞魯迅學'학회에 참석하였다.
- 李永朱 교수(중어중문학과)는 《두보--초기시 역해》(솔출판사, 1999. 1)를 共譯解하여 출판하였으며, 《漢文讀解法》(명문당, 1999)과 《EBS

TV 敎養漢文》(키출판사, 1999)을 共著하였고, 류종목 교수(중어중문학과) 등과 《동서양 시의 이해》(서울대 출판부, 1999)를 共著 출간하였다.

- 金時俊 교수(중어중문학과)는 《한반도와 중국동북3성의 역사문화》(서울대 출판부, 1999.8)를 共著 출판하였다
- 吳金成 교수(동양사학과)는 北京大學에서의 연구와 현지답사(江西·湖南·湖北 등)를 목적으로 1998년 8월 20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1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친 후 1999년 8월 23일 귀국하였다.
- 劉仁善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였으며, 동년 8월 16일에 하노이대학에서의 연구를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약 6개월간 체류하고 2000년 2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 金容德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韓日共同研究 제2기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大韓民國 大學生 訪日研修團을 團長의 자격으로 인솔하고 일본 각지를 방문한 후 귀국하였다.
- 李成珪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5월 韓國 東洋史學會 會長에 취임하였다.
- 朴漢濟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魏晉隋唐史學會가 주최한 중국지역 답사여행에 참가한 후 귀국하였다.
- 金浩東 교수(동양사학과)는 역사 에세이 《황하에서 천산까지》(사계절, 1999)를 출간하였고, 유원수, 정재훈과 함께 《유라시아유목제국사》(사계절, 1998)를 공역 출간하였으며,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사계절, 1999. 11)을 저술 출판하였다.
- 宋榮培 교수(철학과)는 《민족혼으로 산다: 루신 그 위대한 발자취를 찾아서》(학고재, 1999)를 공저 출간했으며, 《天主實義》(서울대 출판부, 1999)를 공역 출판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에는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 페스티벌: 새로운

21세기와 유교의 禮》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하와이 대학에서 출판하는 잡지 *Philosophy East & West* 37호에 “Countering Sinocentrism in 18th Century Korea: Hong Tae-yong’s Vision of “Relativism” and Iconoclasm for Refor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沈在龍 교수(철학과)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6개월 예정으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문화지도 작성: 聖인에 대한 집단의식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차 출국하였다.
- 許南進 교수(철학과)는 *Philosophy and Democracy in Asia*, UNESCO, 1999를 저술 출간하였다.
- 琴章泰 교수(종교학과)는 《한국 유학의 탐구》(서울대 출판부, 1999. 6), 《한국 근대의 유학사상》(서울대 출판부, 1999. 8), 《정약용 -- 실학의 세계》(성균관대 출판부, 1999. 12)를 각각 출판하였고, 1999년 11월에는 《퇴계의 삶과 철학》(서울대 출판부, 1998)으로 도산서원 퇴계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퇴계학 국제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조선전기의 유학사상》(서울대 출판부, 1997)과 《조선 후기의 유학사상》(서울대 출판부, 1998)으로 열암기념사업회주최의 열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金光憲 교수(인류학과)는 1999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열린 'Townscape and Cultural Heritage' 라는 주제의 한불 학술회의에 참석하였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북경대학에서 열린 중국 운남성 제4회 “사회-문화 인류과학 고급세미나”에 참석하여 “對於民族艺术与民族认同问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열린 식민주의와 문화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Colonial Body and Indigenous Soul: Religion as a Contested Terrain of Cultur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9월 22일에서 26일까지는 네덜란드 Leiden Univ.에서 열린 The Modernity of Rural East Asia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

석하여 "A Chinese Village as a Contested Terrain"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金永植 교수(자연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는 1999년 8월 '국제 동아시아 과학·기술·의학사학회'(ICHSEA) 회장에 선임되었다.

## 研究所 消息

- 제63회 공개 강연회 개최

발표자 : 周紹泉(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교수)

주 제 : 徽州文書의 특질과 그 연구가치

일 시 : 1999년 5월 19일

장 소 : 인문대 교수회의실(07-304호)

-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자간의 교류활성화와 인접분야와의 유기적 연구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연구원을 위촉하였다.

- 연구원 : 이남중(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

연구주제 : 宋代 題畫詩 意境研究

연구기간 : 1999. 1. 14 - 2000. 1. 13 (1년)

- 연구원 : 田寅甲(서울대 동양사학과 강사)

연구주제 : 1930年代 上海 勞動者社會와 同鄉·同業網의 機能

연구기간 : 1999. 1. 14 - 2000. 1. 13 (1년)

- 한문 교육을 위해 설치되었던 紫霞書堂(堂長 : 朴漢濟 동양사학과 교수)이 1999년 2학기부터 동아문화연구소 병설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본 연구소에서 "한반도 주변의 문화와 역사"라는 주제로 96년 10월부터 진행해왔던 김시준(중어중문학과) 교수 외 이병근, 서대석 교수(이상 국어국문학과), 정인호(국어국문학과 강사), 권제일 교수(언어학과), 노태돈, 송기호 교수(이상 국사학과), 송호정(국사학과 강사), 오영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의 성과가 《한반도



와 중국동북3성의 역사문화》(서울대출판부, 1999)라는 제목으로 발표 출간되었다.

- <’98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총서발간지원 계획>에 따라 1999년 1월 본 연구소에 지원된 <고전총서>과제에 吳洙亨 교수(중어중문학과)가 “당송팔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총서》과제에는 金衡鍾 교수(동양사학과)가 “清末 江蘇省의 紳士層”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여 각각 선정되었다.
- 본 연구소 간행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으로 일환으로 시작된 정기간행물 《東亞文化》가 제1집(1963년)부터 제36집(1998년)까지 한 장의 CD-ROM 타이틀르 제작되었다. 제작사는 (주)누리미디어(<http://www.nurimedia.co.kr>)이다. (주)누리미디어 인터넷 홈페이지 <학술지DB시리즈>에서 록차나 적자, 논문제목 등 주요단어를 검색하거나 본문 플렉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受贈圖書目錄

### <國文書籍>

圖書名	號數	發行者
江原文化研究	18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江原人文論叢	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京畿道史資料集 文獻目錄	1, 2	京畿道史編纂委員會
京畿道史資料集 索引		京畿道史編纂委員會
京畿道史資料集 年表		京畿道史編纂委員會
京畿道史資料集 資料		京畿道史編纂委員會
慶南文化研究	20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慶尙史學	14	慶尙大學校 史學會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慶州文化研究	2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慶熙史學	22	慶熙史學會
啓明史學	9	啓明史學會
高麗時代軍事編年史(1)		國防軍史研究所
光州 龍鳳洞 遺蹟		光州廣域市立民俗博物館
광주의 茅亭	7	光州民俗博物館
국립문화재단연구소 30년사		국립문화재단연구소
國際問題研究	22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國土開拓史		國防軍史研究所
軍史	37, 38, 39	國防軍史研究所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南冥學研究	8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南冥學研究論叢	7	南冥學研究院出版部

論文集	29	韓南大學校
능업경언해	9.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壇究捷錄		國防軍史研究所
大東文化研究	33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對外經濟政策研究	1998.가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일학연구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東國史學	32	東國史學會
東方學	4, 5	韓瑞大學校 附設 東洋古典研究所
東方學志	104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동북아 정보	99.1, 2	동북아시아정보문화센터
東亞研究	36, 37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東洋學	28, 29	檀國大學校 附設東洋學研究所
東垣學術論文集	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러시아연구	8-2, 9-1,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梅芝論叢	15	延世大學校 梅芝學術研究所
文化財	31	文化財管理局
美國學	21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美術資料	62, 63	國立中央博物館
民族과 文化	7	漢陽大學校 民族學研究所
民族文化	21, 22	民族文化推進會
民族文化論叢	18.19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研究	3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白鹿語文	15	白鹿語文學會
白楊史學	15	新羅大學校史學會
百濟文化	27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備邊司臚錄 濟州記事		濟州道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史學志	31	檀國史學會

社會科學研究	17-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研究	7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所論文集	16	仁荷大學校
山清沙月里遺蹟		東義大學校 博物館
三均主義研究論集	19	三均學會
상상력의 자리찾기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生活科學研究	24	서울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西洋史研究	23, 24	서울大學校 西洋史硏究會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2	서울大學校東洋史學科
서울大學校 統計年報	1999	서울대학교
서울의 고개		서울특별시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9	서울특별시
세종문화대계1 어학, 문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蘇聯軍創設期 軍事關聯文書選集		國防軍史研究所
水原市史·符籙·資料·解題		水原市
市史資料	4	서울特別市
亞細亞女性研究	37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亞細亞文化研究	3	暎園大 아시아文化研究所
아시아문화	14	아시아文化研究所
아시아文化硏究	3	木浦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아태연구	5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安東史學	3	安東史學會
알타이학보	9	한국일타이학회
애산학보	22, 23	애산학회
語學研究	35-3, 4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歷史教育	68-72	歷史教育硏究會
歷史教育論集	23·24	歷史教育學會
蓮崗 中國學論叢	창간호	蓮崗中國學會

年報	8	光州廣域市立民俗博物館
영문화권연구	6	서울대학교 영문화권 연구소
예술문화연구	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溫知論叢	4	溫知學會
외교	48-52	韓國外交協會
外大史學	10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歷史學研究所
龍鳳論叢	27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運搬用具특별전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울산어문논집	11, 12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圓佛敎思想	22	圓光大學校 圓佛敎思想研究院
圓佛敎學	3	韓國圓佛敎學會
陰城郡 文化遺蹟		淸州大學校 博物館
이베로아메리카研究	10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인문과학	2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科學	78, 79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科學論文集	27, 28	大田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科學研究	18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論集	7	暎園大學校 人文學研究所
人文論叢	14-16	蔚山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論叢	41	서울大學校 人文學研究所
人文研究	28-30	仁荷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學研究	28	中央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인문학연구	4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人文學志	18	忠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仁荷史學	6, 7	仁荷歷史學會
日本歷史研究	8, 9	日本歷史研究會
日本學	17, 18	東國大 日本學研究所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자연과학	6, 7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全南史學	12	全南史學會
전농어문연구	11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전라문화소식	1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戰史	1, 2	國防軍史研究所
정신문화연구	73-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濟州道俗談辭典		濟州道
濟州史資料叢書(1)		濟州道
堤川 德周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종교와 문화	4, 5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宗敎學研究	17, 18	서울대학교 宗敎學研究所
中國軍事政策, 1949-1990		國防軍史研究所
中國語文學	32, 33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研究	17, 18	建國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中原文化論叢	2, 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지방사와 지방문화 1		학연문화사
處仁城 老姑城 寶蓋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철학사상	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淸州大學校 博物館報	11	淸州大學校 博物館
淸州 父母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淸州 井北洞 山城	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忠北學	1	忠北學研究所
忠北學文獻目錄集		忠北學研究所
忠州山城 東門址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耽羅, 歷史와 文化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耽羅文化	1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泰東古典研究	15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退溪學報	100-103	退溪學研究院
退溪學研究	11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
抱川 城洞里 다음遺蹟		京畿道博物館
學林	20	延世大學校 史學研究會
韓國軍事史論文選集	4	國防軍史研究所
韓國軍事史研究	99.2, 3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文學研究	21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研究所
韓國文化	22-24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한국문화연구소 요람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韓國民族文化	12, 13	釜山大 韓國民族文化研究所
韓國史論	41, 42	서울大 人文大學 國史學科
韓國史研究彙報	104-10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의 戰爭指導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 以前 38度線 衝突		國防軍史研究所
韓國宗教	23, 24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韓國宗教史研究	7	韓國宗教史學會
韓國學論集	24-26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院
한국학연구	10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한국학연구	10, 1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韓半島 休戰體制 研究		國防軍史研究所
漢城府 北部帳戶籍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鄉土서울	57-5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憲政	202-204	大韓民國 憲政會
호남문화연구	26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環境論叢	36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訓局事例撮要, 訓局總要		國防軍史研究所
AIPPI KOREA JOURNAL	98.12-99.10	韓國國際產業財產權保護協會

KIEP 세계경제	1999.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文圖書>		
光華	24(1-12)	光華書報雜誌社
嘉定 錢大昕全集	1-10	江蘇古籍出版社
國文天地	162-174	國文天地雜誌社
國史館館刊	25-26	國史館印行
國際關係學報	13	國立政治大學外交學界出版
權力遊戰		中國人民大學出版社
近代臺灣電燈發展(1895-1945)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
近代中國歷程	1-4	經濟日報出版社
暨大學報	3-1	國立暨南國際大學出版
大自然	62-65	中華民國自然生態保育協會學術委員會
東吳歷史學報	5, 8	東吳大學出版
東吳社會工作學報	5	東吳大學出版
東吳外語學報	14	東吳大學外語學院出版
東吳政治學報	10	東吳大學出版
東吳哲學學報	4	東吳大學出版
明人飲茶生活文化		明史研究小組印行
文史學報	29	國立中興大學文學院
民國筆記小說大觀(第1輯)	1-10	山西古籍出版社
西周(共和)至西漢歷譜	1, 2	北京科學技術出版社
施善與教化		聯經出版社業公司
新亞學報	19	新亞研究所
新中華	18	新中華季刊社
十月評論	193-197	十月書屋
歷史學報	27	國立臺灣師範大學



研究彙刊	9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
藝術評論	9	國立藝術學院出版
傳記文學	438-450	傳記文學雜誌社
中國近代史通鑒	1-10	紅旗出版社
中國與福音	27	中國福音出版社
天海亭再續稿		天海亭文稿發行準備委員會
清代四大才學小說		臺灣商務印書館
台灣文學中的歷史經驗		文津出版社
台北	1999(1-11)	台北市政府新聞處
台北畫刊	370	
土地資源數據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風雲30	371	臺北市府新聞處
漢郭有道碑考		文津出版社
漢藏語同源詞綜探		學生書局
漢學研究通訊	68-70	漢學研究中心 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
海外學人	299-304	錦龍印刷公司
行政院公報	1-43	檔案出版社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 87年年報		行政院 國家科學委員會

### 〈元明筆記史料〉

四友齋叢說		中華書局
玉堂叢語		中華書局
典故紀聞		中華書局
戒庵老人漫筆		中華書局
水東日記		中華書局
萬曆野獲編	上, 中, 下	中華書局
歸潛志		中華書局
菽園雜記		中華書局

草木子		中華書局
南村輟耕錄		中華書局
廣志繹		中華書局
今言		中華書局
玉鏡新譚		中華書局
庚巳編 客座贅語		中華書局
三垣筆記		中華書局
治世餘聞 繼世紀聞 松窗夢語		中華書局
賢博編 粵劍編 原李耳載		中華書局
寓圃雜記 穀山筆麈		中華書局

〈清代筆記史料〉

郎潛紀聞初筆 二筆 三筆	上, 下	中華書局
竹葉亭雜記 簷曝雜記		中華書局
歸田瑣記		中華書局
柳南隨筆 續筆		中華書局
浪跡叢談 續談三談		中華書局
海國四說		中華書局
蕉軒隨錄 續錄		中華書局
水窗春塵		中華書局
古夫干亭雜錄		中華書局
蕉廊坐錄		中華書局
萇楚齋隨筆 續筆 三筆 四筆 五筆	上, 下	中華書局
池北偶談	上, 下	中華書局
廣東新語	上, 下	中華書局
聽雨叢談		中華書局
嘯亭雜錄		中華書局
冷廬雜識		中華書局

樞垣記略		中華書局
不下帶編 巾箱說		中華書局
舊典備徵 安樂康平室隨筆		中華書局
爽氣閒記		中華書局
異辭錄		中華書局
廣陽雜記		中華書局
世載堂雜憶		中華書局
漏網偶魚集 海角續編		中華書局
庸閒齋筆記		中華書局
分甘餘話		中華書局
巢林筆談		中華書局
郎潛紀聞四筆		中華書局
永憲錄		中華書局
履園叢話	上, 下	中華書局
清秘述聞三種	上, 中, 下	中華書局
北游錄		中華書局
陶廬雜錄		中華書局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鄉言解頤 吳下諺聯		中華書局
鏡湖自撰年譜		中華書局

<日文圖書>

JIL資料シリーズ	110-124	日本勞動研究機構
JILリサーチ	36, 37	日本勞動研究機構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57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 アフリカ 言語文化研究所
アジア	18, 19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

經濟研究	12	大東文化大學經濟研究所
教學研究所紀要	4	神社教學研究所
國際文化學部紀要	13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
國際日本文學研究集會會議錄	22	國文學研究資料館
國際日本研究專攻概要		綜合研究大學院大學文化科學研究科
國學院大學紀要	37	國學研究大學
近代中國研究彙報	21	東洋文庫
內外文化研究紀要	27	廣島大學文學部 內外文化研究施設
大倉山文化會議研究年報	10	大倉山文化會議
東アジア研究	24, 25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
東洋文庫年報	30	東洋文庫
東洋文化	79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東洋文化研究	1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東洋史研究	57-2, 3, 58	東洋史研究會
名古屋大學文學部 研究論集	133-135	名古屋大學文學部
文學研究	96	九州大學文學部
史淵	136	九州大學文學部
社會學雜誌	99-16	神戶大學社會學研究會
宋史食貨志譯註	2, 3	東洋文庫
研究紀要	16, 17	日本勞動研究機構
年報朝鮮學	7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外交史料館報	13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文研究	17-21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日本の白書		清文社
日本の想像力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日本關係歐文圖書目錄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日本社會と何か		日本放送出版協會
一誠堂古書目錄	89	一誠堂書庫

朝鮮文化研究	6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朝鮮學報	168-172	朝鮮學會
中國における日本研究		中華日本學會 北京日本研究センター
哲學年報	58	九州大學文學部
青丘學術論集	14, 15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英文圖書>

Annali	56, 57	NAPOLI 1996
Asian Research Trends	99-8, 9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The Toyo Bunko
Asian Women	7, 8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s
Aichi Voice	11	Aichi Internationnal Association
Asia-Pasific Review	5-3	IIPS
Current Contents of Academic Journals on Japan	25	Center for Academic Publication Japan
Inside China Mainland	239-249	Institute of Current China Studie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f Negotiating Behavio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Origins of the Japanese	1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slands or Security? ; Japanese-Soviet Relations under Brezhnev and Andropov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Japan Review	11	Bulleti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in Europe	1, 2	The Japan Foundation
Jou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6	Institute for The Studies Of Languages And Cultureso of Asia

Korea Journal	38.4-39.4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Culture	19.4-20.3	Korean Culture Center
Korea Observations on Foreign Relations	1-1	韓國外交協會
Pacific Friend	26.8-27.7	Jiji Gaho Sha. Inc.
Postal Service Today	49.4-50.4	今日郵政月刊社
Proceedings	99-1	National Science Council
Revue d'Etudes Francophones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
Theater Year-Book	1999	I.T.I. Japan Center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5-1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8.1-5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Origins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Decoctio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LTCB International Library Foundation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8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ansactions of Asiatic Society of Japan	12	The Asiatic Society of Japan